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

양경언 고정희의 『밥과 자본주의』 연작시와 커먼즈 연구

이은영 고정희 시에 나타난 불화의 정치성

—마당굿시를 중심으로

고정희의 『밥과 자본주의』 연작시와 커먼즈 연구

양경언

서울예술대학교 강사

- 1 들어가며
- 2 밥, 비개성의 영역
- 3 시, 재창조의 영역
- 4 나가며: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노래

본고는 고정희 시인의 연작시『밥과 자본주의』를 ‘커먼즈(common)’의 실천으로 독해하면서 해당 연작시의 의의를 탐구하기 위해 쓰였다.

커먼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문제에 맞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동, 공유, 돌봄이라는 가치 추구 행위 및 이를 통해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드는 움직임이다. ‘커먼즈’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논할 때 주목할 작품이 고정희 시인의『밥과 자본주의』연작이다. 본고는 리비스의 공동체론에 입각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문학의 커먼즈적인 속성에 따라『밥과 자본주의』연작을 독해한다. 이를 통해 해당 연작시가 공동체의 풍부한 토착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비개성의 영역’을 형성하고, ‘상호 협동적 창조성의 영역’을 구축한다는 것을 밝힌다. 2장에서는 연작시에 등장하는 ‘밥’이 공(公/共)과 사(私)의 영역을 넘어서서 ‘누구나’ 서로를 돌보는 비개성의 영역을 매개함으로써 여기에 참여하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상황을 살핀다. 3장에서는 전통적인 ‘기도문’, ‘노래’의 형식이 다른 사회로 전환을 꾀하는 협동적 창조의 범례로 자리하는 상황을 읽는다.

본고는 1987년 이후 ‘여성 시인’의 변혁적인 시적 발화가 선취하는 급진성을 새기면서, ‘함께 사는 삶’을 경시하다가 위기에 봉착한 오늘날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초점화 한다.『밥과 자본주의』연작은 시가 쓰이고 읽히는 작업이 곧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면서 ‘우리’를 확장하는 ‘커머닝’의 일환임을 알린다.

국문핵심어: 고정희, 밥과 자본주의, 커먼즈, 공동체, 협동, 돌봄, 비개성, 창조성, 변혁성

1 들어가며

본고는 고정희 시인의『밥과 자본주의』연작시를 ‘커먼즈(common)’¹⁾의 실천

1 ‘커먼즈(common)’는 “근대 이전 시기부터” 사회적 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해”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이용하던 “자연자원” 및 “그 관리제도”를 통칭하는 말로, 흔히 ‘공공재’ ‘공

으로 독해하면서 해당 연작시의 의의를 탐구하기 위해 쓰였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시작된 팬데믹은 이른바 성장과 경쟁, 금융축적에 가치를 두면서 팽창해온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문제들을 심화시키면서 ‘팬데믹이 초래된 이후의 사회’ 뿐 아니라 ‘팬데믹의 위기를 초래한 사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전염병의 유행 속에서 재난과 위기가 차등적으로 배분되고 돌봄·의료·노동·교육 등 살아있는 존재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활동이 특정 젠더 및 계층에 떠넘겨지는 상황의 노골화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지금 세계의 존속 가능성이 희박해지리란 전망을 그리게 한다. 백영경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전환의 원리로서 돌봄”을 부각시키면서, 성장주의에서 탈피하여 “협동, 공유, 돌봄”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노동, 형평성 있는 관계, 연대에 기초한 공동체, 자연에 대한 존중, 공생”의 직접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다.² 사회전환을 오롯이 국가제도의 혁신에만 맡긴다거나, 사적 영역에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는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얘기다.³ 지금은 공동체를

유지’를 칭하기 위해 쓰인다. 한국에서는 ‘공유재’, ‘공동자원’, ‘공통자원’ 등으로 번역 및 수용되어왔다(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제23권 4호, 한국아시아학회, 2020, 242쪽). 한편 ‘커먼즈’가 “자원의 문제로 환원되기 어려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자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대목도 많”다는 지적을 상기한다면(백영경, 「복지와 커먼즈」, 『창작과비평』 제45권 3호, 창작과비평사, 2017년 가을, 25쪽), 해당 개념은 논의의 맥락에 따라 합당한 번역어가 무엇인지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는 ‘커먼즈’를 물질적인 차원으로 한정된 논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해당 개념이 근대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소유’에 대한 상상력을 다르게 연다는 데에 주목한다. 따라서 ‘커먼즈’라는 용어를 다른 번역어로 대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개념이 공동자원과 연관된 제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인 실천 및 이를 구성하는 주체적 역량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2 백영경, 「탈성장 전환의 요구와 돌봄이라는 화두」,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 황정아 외 공저, 창비, 2020, 56쪽.

3 ‘공공성’이란 개념에는 “서로 의미가 다른 두개의 ‘공(公/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제기됐던 논의는 그중에서도 “공(公)”을 “관(官)이나 통치로만 삼았던 경향이 있다. 백영경은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실천이 역사적으로 국가의 역할에만 기댄 채 이뤄져왔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公), 공(共), 사(私) 영역 전반에 걸쳐 작동”해왔음을 지적한다. 백영경, 앞의 글, 24쪽.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던 실제 주체들을 가시화하고 이들의 ‘협동, 공유, 돌봄’ 수행 역량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때다. ‘커먼즈’적인 움직임은 이 같은 맥락에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가이 스탠딩의 정의를 참조하여 말하자면 ‘커먼즈’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모든 자연자원”과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었고 우리가 보존하고 개선해야 하는 모든 사회적·시민적·문화적 제도”, “수세기에 걸쳐 구성된 사상과 정보의 체계 위에 건설된 사회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⁴ 따라서 커먼즈적인 움직임은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문제에 맞서 국가가 도식적으로 주도하는 ‘공공’을 넘어서면서도, 아울러 고립된 개개인 이 각자도생하는 상황 역시 넘어서는 자리에서 발휘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동, 공유, 돌봄이라는 가치 추구 행위 및 이를 통해 공동으로 추구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수호하는 움직임을 이른다.⁵ 커먼즈 그 자체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자 그들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이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라는 자각 속에서 국가와 공적인 공간을 장악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인 셈이다.⁶ 역사적으로 공동의 것이라고 이해되어 왔던 자원이 급격하게 사유화 및 상품화되어가고 이러한 체제로 인해 삶의 창조성이 위협받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이 소유의 주체를 재조정하고, 분배의 영역을 재구성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으로 축적된 주체의 역량을 활성화하는 커먼즈적인 움직임이 의의를 얻을 수 있다. 요컨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믿음”과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기업의 가치”, ‘사적 소유화’에 대한 “믿음”을 부추기는⁷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문명적 위기 상황을 타개

4 가이 스탠딩, 안효상 역, 『공유지의 약탈』, 창비, 2021, 15쪽.

5 토마스 알란이 커먼즈의 정의를 “자각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과 위협에 놓인 자신들의 자원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책임지겠다는 비전”으로 내린 바 또한 참조할 필요가 있다. Thmas Allan, “Beyond Efficiency: Care and the Commons,” Centre for Welfare Reform(www.centreforwelfarereform.org), 2016.10.6. 백영경, 앞의 글, 30쪽에서 재인용.

6 위의 글, 28쪽.

7 J.K. 김슨-그레이엄·제니 캐머런·스티븐 힐리, 황성원 역,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동녘, 2015, 22쪽.

하기 위해서는 ‘공(公), 공(共), 사(私)’ 영역 전반에서 주체적인 자각과 함께 활동해왔던 행위자를 가시화하고 해당 영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담긴 가치의 방향이 중시되어야 한다.

‘커먼즈’적인 실천의 필요성에 대해 논할 때 한국문학사가 주목해야 하는 작품이 바로 고정희 시인의 유고시집『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1992)의 1부에 총 26편으로 수록되어 있는 『밥과 자본주의』 연작이다.⁸ 이 연작시편은 1975년 『현대시학』에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민중 억압, 여성 억압에 대한 고발 및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역사적 사건의 현재성과 같은 목직한 주제로 시를 써왔던 시인이 1990년 8월부터 1991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 체류하면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밥과 자본주의』 연작시가 쓰인 1990년대 초는 “서구적 대중소비사회가 현실로 다가온” 시기로,¹⁰ 이 무렵 시인의 작품에는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사람들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예리한 체감이 담겨 있다. 특히 마닐라에서의 경험은 시인에게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의 폐해가 아시아 민중,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여성’, ‘민중’들에게 어떠한 폐해를 끼쳐왔는가를 여실히 목격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는데,¹¹ 시인은 ‘아시아 민중 여

8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고정희의 시는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창작과비평사, 1992) 수록 작품임을 밝힌다. 그 밖의 작품은 출처를 따로 표기한다.

9 고정희의 마닐라 체류기간 및 필리핀에서의 활동내용을 밝힌 연구로는 이소희, 『『밥과 자본주의』에 나타난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와 문체혁명: 「몸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한마당」을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99-144쪽 참조.

10 한국사회는 “87년을 지나면서” “이전의 산업화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은 “산업화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제조업 비중이 정점에 달해서 하락하기 시작하는 때”였고, 한편에서는 “임금 증가의 폭이 높아지고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폭발적 대량소비’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시기의 경제적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자본주의의 ‘성장’이 가져오는 득과 실을 동시에 체감하게 만들었다. 유철규,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 변화의 의미」, 『87년 체제론』, 김종엽 편, 창비, 2009, 247쪽. 참조.

11 이소희,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 고정희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18, 202쪽.

성'을 구속하는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는 역할로 자신의 몫을 한정하지 않고, 이들 스스로가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살아있는 삶을 조직해나가는지를 살피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가령 필리핀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시인이 동료에게 쓴 편지에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가부장제 전반에 걸친 억압이 필리핀의 여성 민중을 엮매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자신의 생활 문제를 자각하고 정치적 주체로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시인의 모습이 드러난다.¹² 시인 자신이 '커먼즈'라는 개념을 언어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시아의 민중들을 먹여 살리는 '밥'과 이들이 스스로 꾸려나가는 '밥상 문화'에 주목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신식민주의, 가부장제 등이 낳는 억압과 경쟁, 폭력과 고립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각성된 주체들이 협동과 공유와 돌봄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황이 『밥과 자본주의』 연작에는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주체의 문제와 젠더의 문제”가¹³ 포함된 ‘우리’의 상을 확장하면서 사회의 부정의를 양산하는 체제의 반복이 아닌 다른 성격의 사회로 질적인 전환을 이뤄낼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해당 연작시는 커먼즈적인 움직임으로 독해될 여지가 있다.

그간 『밥과 자본주의』 연작은 아시아 각국의 여성, 아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이유로 “타자로서의 여성을 식민주의 국가에까지 연결시키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실천”한 작품이라고 평가되어왔다.¹⁴ 그러나 현실의 부정의를 상대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으로 시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연구가 고정희의 시를 마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현실 그 자체로 인정하게 만드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작품으로 혹은, 사회의 부정성을 내면화한 주체

12 시인은 마닐라의 아시아 문학예술원에서 머무는 동안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낸다. 한 편지에는 필리핀의 식민지 해방 투쟁에서 중요한 공을 세웠던 호세 리잘의 번역시를 담아 정치·경제적인 착취 속에서도 문화적 자긍심의 고취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기도 하고, 또 다른 편지에서는 “여자 문제”는 “래디칼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각국의 여성 민중 주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고 어필하기도 한다. 조형 외 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또 하나의 문화, 1993, 48-73쪽.

13 백영경, 앞의 글, 22쪽

14 대표적인 논의로 김승희, 「상징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현대시 텍스트 읽기』, 태학사, 2001, 219쪽.

의 발화만으로 이뤄진 작품으로 읽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더 섬세한 토론이 요청된다. 가령 이은영은 고정희의 『밥과 자본주의』 연작 중에서도 「구정동아 구정동아」를 “도시공간의 부정성을 지각하고 포착”한 시편으로 분석하면서, 시인의 1980-90년대 작업을 “한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양산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목소리”로 듣는다.¹⁵ 이는 자칫 부정적인 현실 재현에 초점을 맞추느라 고정희의 시편들 속에서 발견되는 부정성을 가로질러 가는 주체들의 창조적인 역량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해석으로 그칠 수 있다. 김민구는 『밥과 자본주의』 연작이 “민중의 안티테제로” “교회”를 상징하고 이를 매개로 나타나는 수난에 집중한 시편”이라고 평가하면서 시인이 “87년 이전”과 “이후”를 “수난의 연속성 안에 있”다는 자각을 통해 “자본주의와 결탁하는 교회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던진다고 말한다.¹⁶ 시가 상징한 적대적인 대상이 현실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시도되는 이러한 연구의 경우 고정희가 살리고자 했던 목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 “당대 여성 작가들”이 “‘리얼리즘’에 대한 강박적 요구와 편협하게 규정된 ‘여성 문학’이라는 이중적 질곡을 감당”했다고 보는 김보경의 연구에서는,¹⁷ 고정희의 시가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를 “특정 계급의 여성으로 규범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여성 간 실천적 연대를 도모”한 점을 살핀다. 고정희가 특정한 조건을 갖춘 존재에만 집중하지 않고 “상이한 여성 주체들 간의 연결망을 재현”한다는 읽기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시인이 현실을 겨냥하는 시의 움직임도 도모하면서 부정적인 현실의 자기 반영에만 머물지 않고 리얼리즘을 갱신해갔던 상황을 고려하

15 이은영, 「1980년대 시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한 재현과 부정성—고정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9권 0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205-238쪽.

16 김민구, 「고정희 연작 「밥과 자본주의」에 나타난 정의의 결정행위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권 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31-60쪽.

17 김보경, 「『또 하나의 문화』의 여성시에 나타난 ‘차이’ 라는 여성 연대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0호, 한국현대문학회, 2020, 119-151쪽.

고 있는지, 그리고 시인이 “여성의 문제를 단순한 남성 여성간의 사적인 대비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¹⁸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여성 문학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던 상황을 존중하고 있는지 여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밥과 자본주의』 연작시를 위시하여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르는 고정희 시에 대한 일련의 평가가 애초부터 고정희의 작업을 마치 1980년대의 민중 주체를 중시하는 대중문화운동과 분리된 여성 주체의 개인 욕망을 사수하기 위한 활동으로 수렴하지는 않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¹⁹ 90년대 초반에 창작된 『밥과 자본주의』 연작은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꾸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가꿔온 지식과 경험적 차원의 소재를 포착하면서 그것을 통해 역사가 이어지는 가능성을 전함으로써 역사를 단절적으로 사유하지 않는다. 또한, 이념적인 이상으로 제시되는 ‘우리’와 또 다른 방향의 이상인 ‘개인’ 어느 한 곳에도 귀착되지 않는 주체들의 역동을 그리고 있다. 당시 시인이 시도했던 “고여 있지 않은 운동”²⁰으로서의 시가 가진 변혁성을

18 고정희 외, 좌담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여성 해방의 문학 [또 하나의 문화] 제3호』 (재발행본),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 편집, 또 하나의 문화, 1995, 24쪽.

19 조연정은 고정희가 1980년대 변혁적 운동 진영이 단일한 정체성으로 투쟁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여성들 자신의 목소리가 직접 발화되어야 한다는 요청과 더불어 문학은 그러한 목소리가 드러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짚어낸다(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 고정희 시를 읽기 위한 시론(試論)」, 『우리말글』 제71호, 우리말글학회, 2016, 241-273쪽). 이는 시인이 특정 집단의 힘을 강조하는 일보다 사회 구조적인 억압을 감당하는 이들의 실질적인 주체성, 이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수평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일러주는 소중한 연구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가 한국문학사의 1980년대를 ‘집단적인 이념’에 휩싸인 시대로, 이어서 1990년대를 개인의 욕망이 더 추구되는 시대로 단절의 선을 그은 채 형성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고정희가 경계했던 것은 다양한 결에 의해 발현되는 문제가 단절적으로 범주화되는 상황이었지, 민중 운동과 여성 운동 사이 간극을 뚜렷이 하는 데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0 고정희는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면서 “삶이 곧 운동이다, 운동은 결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인식한다면 여성문학의 지평이 넓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힘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운동의 성장과 연결되는 속에서 여성해방의 움직임 역시 활로를 찾았다고 봤다. 그러한 현장에서 쓰이는 것이 곧 여성 해방 문학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고정희 외, 앞의 좌담, 25쪽.

제대로 짚는 읽기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현실 고발 성격의 문학이 승했다고 얘기되는 1980년대 한국문학의 연장선상에 고정희의 시를 위치시키고자 하는 평가는 시의 재현성을 한정적으로 살핌으로써 시가 탄력적으로 시대와 조응하면서 창출해나가는 변혁성에 대해서는 덜 말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 개인’의 욕망이 문학작품을 통해 두드러지게 가시화됐다고 얘기되는 1990년대 문학의 교두보로 고정희의 시를 삼고자 하는 평가는 고정희 시에서 민중 운동, 여성해방 운동이 교차하는 지점을 복합적으로 살피는 일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시인 ‘고정희’라는 문학사적 난제는 1987년 이후 ‘여성 시인’의 변혁성을 띤 발화, 혹은 시인 자신이 “문체 혁명”²¹이라는 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바에 따라 짐작할 수 있을 ‘여성 시인’의 리얼리즘적인 시도가 어떻게 굴절되어 평가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을 커먼즈의 실천으로 읽고자 하는 본고의 시도는 작품의 현재성을 살리려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고정희 시가 선취하고 있던 급진성을 의미화 함으로써 문학사에서 해당 연작의 가치를 다시금 새기려는 의의 또한 얻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가 시도하는 『밥과 자본주의』 연작에 대한 ‘커먼즈’적인 접근은 애초부터 특정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언어로 구현되는 ‘문학’과 ‘커먼즈’의 관계를 정치하게 살피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문학이 커먼즈라면” “‘공통적인 것’ 혹은 ‘함께 나눔’은 “어떤 성격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리비스의 공동체에 대한 문학론을 경유하여 문학과 커먼즈의 연관관계를 해명했던 황정아의 논의를 참조,²² 리비스의 공동체론에 기대어 고정희 시에서 커먼즈적인 실천

21 ‘문체 혁명’에 대해서는 시인을 추모하기 위해 쓰인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7년, 결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세월 동안 그는 여성을 어떻게 그의 문학과 신학의 만남 속에 교차시키고 민주화 운동과 여성 운동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더 나아가 여성 운동이 어떻게 남성중심적 민주화 운동의 토양을 바꾸고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함으로써 서로 힘을 늘릴까 하는 고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결국 그는 무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한 듯싶다. 그 한 방법을 ‘문체 혁명’이라고 불렀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했으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조형 외 편, 앞의 책, 73쪽.

22 황정아, 「문학성과 커먼즈」, 『창작과비평』 제46권 2호, 창작과비평사, 2018년 여름, 19쪽.

의 면모를 찾는다.

리비스는 근대 이후 기술문명이 지배적이 되고 민중문화의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기술 공학적, 벤담적 문명’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산업화 이전 시대의 “유기적 공동체(organic community)”로의 회복, 언어를 사용하는 민중들에 의한 “상호 협동적 창조성” 구현을 제시한다.²³ 이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의 지배하에 기술 공학적, 벤담적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창조적인 인간의 지각과 사유 그리고 언어가 그 근원적인 창조성을 잃고 도구화”되었다고 보면서,²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점점 상실되어가는 삶의 창조성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문학의 ‘제3의 영역’ 형성으로 문명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살아 있음은 늘 다시 태어나는 새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창조성”으로²⁵ 보았던 리비스에게 “경탄스러운 삶-생명의 본질을 훼손·파괴하는 가공할 반생명적 힘들에 대한 저항”은 중요했고, 그가 봤을 때 이는 “사사로운 것도 아니고 피상적인 의미의 공적인 것도 아닌 독특한 ‘비개성(impersonality)’의 영역”인 “제3의 영역”에²⁶ 도달하는 예술 활동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주도적인 한 사람의 ‘개성’으로부터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축적해가는 전통과 경험으로부터 발원한 ‘비개성’의 영역에서 예술의 창조성을 발견하는 리비스의 입장은 개개인 간의 경쟁 및 사적 소유화를 부추기는 사회 질서에 반기를 드는 커먼즈 논의와 연결된다. 리비스가 ‘소유’를 “우리가 그에 속한 것을 향한 근본적이며 살아 있는 경의”로 정의하고,²⁷ 여기서 ‘경의’를 “존재

23 김영희, 「포스트 시대 인문교육에서 리비스의 효용: 테리 이글턴의 『비평의 기능』과 관련하여」, 『영미문학교육』 제17권 3호,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13, 66쪽; 정남영, 「리비스의 작품 비평과 언어의 창조적 사용」, 『영미문학연구』 제6권 0호, 영미문학연구회, 2004, 830-112쪽. 참조.

24 김영희, 위의 글, 68쪽.

25 F. R. Leavis, *Nor Shall My Sword: Discourses on Pluralism, Compassion, and Social Hope*, London: Chatto & Windus, 1972, p.20, 김종철, 『大地의 상상력』, 녹색평론사, 2020, 221쪽에서 재인용.

26 김종철, 위의 책, 221-222쪽.

27 F. R. Leavis, *Ibid*, 1972, p.62, 황정아, 앞의 글, 20쪽에서 재인용.

의 궁극적 근원에 대한 겸허한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삶에 대한 책임감”과 연관된 것이라 설명했을 때,²⁸ 이는 “관습적 소유 관념에 전제된 주체-대상의 관계를 전복시키면서 실상 그런 방식으로 소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존중하는 행위”²⁹와 닮아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맺는 ‘소유’ 관계를 계속해서 살아 유지되어야 하는 삶이 행해야하는 ‘살아있는 창조적 반응’으로 전환하여 생각한다면, 문학을 통해 이룩할 수 있는 ‘커먼즈’란 살아있는 개개인이 서로 속해있는 공동체에 따라 형성된 “풍부한 토착 언어”³⁰의 전통 위에서, 개별 존재라면 누구나 모일 수 있는 ‘비개성의 영역’ 형성 및 이들이 만나고 촉발시키는 ‘상호 협동적 창조성의 영역’ 형성으로 가능하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은 ‘고정희’라는 시인 한 사람의 선구자적인 자취를 탐색하는 일 못지않게, 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술한 얼굴을 겹쳐냄으로써 중국에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시의 역할을 조율했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작품이다. 2장에서는 『밥과 자본주의』 연작시의 여러 시편에서 나타나는 ‘밥’이 공(公/共)과 사(私)의 영역을 넘어서서 ‘누구나’ 서로를 돌보는 ‘비개성’의 영역을 매개함으로써 여기에 참여하는 존재들의 목소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현장을 창안하는 상황을 살핀다. 3장에서는 『밥과 자본주의』 연작 시편 중에서 전통적인 ‘기도문’, ‘노래’의 형식을 활용하는 작품을 읽으면서, 이것이 곧 구성원들이 상호 협동하면서 다른 체제로 질적인 전환을 창조해내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밥과 자본주의』를 커먼즈의 실천으로 읽는 과정에서 시가 ‘누군가의 시’라는 사적소유로 점철된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의 노래’라는 협동적 창조의 범례로 자리하는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면, 시가 쓰이고 읽히는 작업은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면서 ‘우리’를 확장하는 “커머닝(commoning)”³¹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밥, 비개성의 영역

28 김중철, 앞의 책, 205쪽.

29 황정아, 앞의 글, 21쪽.

30 김중철, 앞의 책, 210쪽.

31 백영경, 앞의 글, 28쪽.

‘밥’으로 표상되는 ‘먹거리’는 그것을 “기르고, 만들고, 먹고, 치우는 모든 문제가 정치적”이다.³² 실제로 ‘먹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깃드는 노동행위에서부터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밥’을 둘러싼 여러 관계를 헤아리다보면 ‘먹거리’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애기될 수 없다. 지금 사회를 지탱하는 골자로서의 ‘밥’을 매개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에 따라 지배적인 사회통치 논리에 잠식되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먹거리를 마련하고 만들고 치우는 등 인간을 살리는 행위가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밥과 관련한 돌봄 행위는 역사적으로 “평가절하”되었고, 이러한 일들은 마치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여성’만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³³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밥을 둘러싼 관계에서 공적 영역의 역할을 삭제하고 사적 영역의 역할을 남겨두는 젠더 질서를 작동시킨다. 이를 일찍부터 의식했던 고정희는 성 차별적인 구조에서 줄곧 경시되어 왔지만 실은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매개인 ‘밥’을 둘러싼 행위를 어떻게 형상화해야 하는지 골몰해왔다. 가령, 1990년에 상재한『광주의 눈물비』의 제2부 「눈물의 주먹밥 - 암하레츠 시편 8」에서 광주 민중들의 “해방구”가 되었던 ‘밥’에 관하여 언급했던 대목은³⁴ 이소희에 따르면 “고정희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어온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혁신적인 상징기호”로서의 “어머니 하느님”에 닿을 수 있는 경로로 ‘밥’이 역할 했음을 알린 작품으로 평가된다.³⁵『광주의 눈물비』(1990)를 상재하기 이전인 1988년 5월 고정희가 『월간 중앙』에 발표한 르포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에서도 1980년 5월 광주항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32 이라영, 『정치적인 식탁』, 동녘, 2019, 8쪽.

33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역, 『돌봄선언』, 니케북스, 2021, 52쪽 참조.

34 “어머니의 피눈물로 버무린 주먹밥 / 자매들의 통곡으로 간을 맞춘 주먹밥 / 눈물의 주먹밥 먹어보았나 / 사람이여 사람이여 사람이여 / 밥으로 다리놓는 장백산 하늘까지 / 오월사랑 지고 갈 사람이여 / 육천만 먹고 남을 통일의 주먹밥 / 해방구의 주먹밥 먹어보았나” 고정희, 「눈물의 주먹밥-암하레츠 시편8」, 『고정희 시전집 2』, 또 하나의 문화, 2011, 173쪽.

35 이소희, 앞의 책, 202쪽.

참여했는지 뿐 아니라 ‘밥’에 담긴 정치적 의미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³⁶ 이 글에 따르면 광주항쟁에서 여성들은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와해될 수 있을 조직을 보살피고 시위대의 꺼져가는 기운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선두에 섰으며, 많은 이들의 ‘생명’이 부지되기 위해서 살피야 할 영역을 놓치지 않고 ‘나서서’ 한다. 시인은 시위 현장에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많은 이들과 나눈 “주먹밥”을 “광주 공동체의 피로 맺어진 약속의 밥”이라 이른다.

광주 전역에 걸쳐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조직 아닌 조직활동에 들어갔다. (...) 오전 9시에 이미 금남로는 10만이 넘는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손자를 끌고 시위장에 나온 할머니, 어린 꼬마를 데리고 나온 가정주부, 근무를 포기하고 나온 여성근로자들이 대거 시위대에 참여했으며 이날 아침부터 시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시위군중과 청년들을 위해 여성들이 마련한 음식들이 길가에 즐비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면 어디든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길목을 지키다가 지나는 시위차량을 멈추게 하고는 김밥과 주먹밥을 한 합지씩 실어 주는 것이었다.

(...)

이 주먹밥이야말로 광주 공동체의 피로 맺어진 약속의 밥이었다. 밥을 먹는 시민들은 자신이 광주 공동체가 뽑아서 민주화 전선으로 내보낸 전사임을 새롭게 자각했고 밥을 해준 주부들은 비인간적인 공포로부터 벗어나 그것들을 몰아내는 데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바

36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는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공수부대의 잔인한 폭력을 가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민주해방’이란 목표를 내걸고 활약했던 송백희 회원들의 활동에서부터 ‘녹두서점’의 ‘정현애’, 투쟁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린 방송원 ‘전옥주’,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여성들, 병원을 지키던 의료진들, 황금동 술집 접대부로 알려진 여성들의 분향대 사수 등 각개각층의 여성의 활약상을 항쟁의 진행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보고한다. 이 글은 광주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1988년에 발표되어 광주항쟁의 전개를 소상히 전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는 한편, 항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멸해버리거나 은폐될 수 있을 기록을 놓치지 않고 담았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밥이 나서 밥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못배기는 모습이였다. 이와 같은 식사의 연대는 금남로의 시위 군중을 새로운 전의에 불타도록 만들었고 뜨거운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 고정희,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
부분, 『월간중앙』 5월호, 1988.

인용한 부분에서 시인은 “주먹밥”이 항쟁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군부에 저항하면서 민주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약속”의 양식이자,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기본적인 단위였다고 표현한다.

광주항쟁의 중요한 자원으로 “밥”을 짚어내는 작업은 밥을 짓고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발휘되는 정치적 역량으로서의 ‘돌봄 행위’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도록 만든다. 항쟁이 진행되는 동안 “주먹밥”을 만들고 나누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여성들은 평상시 이들 몸에 체화되어 있던 ‘돌봄’ 행위를 멈추지 않고 도리어 자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항쟁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을 ‘살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고정된 성별 역할에 구속받지 않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지금 처한 질서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항 활동을 수행했다. 광주민중항쟁에서 ‘밥’, 그리고 ‘밥’으로 매개되는 ‘돌봄 행위(이자 저항행위)’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경의’를 표하는 방식, 즉 커먼즈적인 실천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처럼 공(公/共)과 사(私)의 영역을 넘어서서 ‘누구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비개성’의 영역을 매개하는 ‘밥’은 『밥과 자본주의』 연작에서 그 의미의 명맥을 뚜렷이 잇는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에서 ‘밥’은 기존의 사회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개,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원을 책임지면서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꾀하는 시적 장치로 등장한다.

밥은 모든 밥상에 놓인 게 아니란다
네가 햄버거를 선택하고
왕새우 요리를 즐기기까지 이 흰
쌀밥은 애초부터 공평하지 않았구나
너는 이제 알아야 한다
밥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란다
네가 밥을 함께 나눌 친구를 갖지 못했다면
누군가는 지금 밥그릇이 비어 있단다
네가 함께 웃을 친구를 아직 갖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지금 울고 있는 거란다
이 밥그릇 속에 이 밥 한그릇 속에
이 세상 모든 슬픔의 비밀이 들어 있단다

그러므로 아이야
우리가 밥상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것은
배부름보다 먼저 이 세상 절반의
밥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이란다
하늘은 어디서나 푸르구나 그러나
밥은 모든 밥상에 놓인 게 아니란다
네 웃음소리를 스스로 낮추련?

— 「밥은 모든 밥상에 놓인 게 아니란다」 부분 (밑줄은 인용자)

‘밥상’은 “아이”인 “너”를 포함한 “우리”가 차등 없이 “둥그런 밥상 앞에 둘러 앉”아야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쌀밥 한 접시에 서려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곡절”이 담겨야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위의 시는 ‘밥상’을 형성하는 현재의 공평하지 않은 세계 질서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 앞에 놓인 밥상이 그 자리에 놓이기까지 거쳐 온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질서 하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밥그릇이 비어”있는 누군가를 가시화하고, 그이들과 공평하게 먹거리를 공유하는 장소로 “밥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전하는 것이다.

“밥은 모든 밥상에 놓인 게 아”니라 전하고, “밥상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일 것을 요청하는 위의 시에서 ‘밥상’이 있는 자리는 결국 실천적인 태도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질서를 그리는 장소가 된다. “이 세상 절반의” “밥그릇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웃음소리를 낮추”는 실천을 통해 밥상의 구성원들은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시의 화자가 중시하는 ‘함께 나누는 밥’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삶 능력을 증진하고 회복하는 운동”으로서의 “생활정치” 모습을 띠고 있다.³⁷ 이를 개개인의 상호 협동을 통한 직접적인 참여로 자본주의, 가부장제 체제가 낳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다른 질서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커먼즈적 실천으로 읽는다면, “밥”은 ‘나’의 생활이 존속되기 위해 ‘나’ 자신이 만들어나가는 것이자, ‘나’만의 것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 되기 위해 지금 세상에서 계속해서 의식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문제의 핵심 이슈가 된다.

한편 ‘밥’과 ‘자본주의’가 ‘과’로 연결되어 있는 ‘밥과 자본주의’라는 연작시의 제목은 ‘밥’이 현존하는 체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동시에 체제로부터 탈구되는 흐름에 속하기도 하는 이중의 운동성을 보유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연작시의 제목은 ‘밥’을 둘러싼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나갈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천이 ‘누구’에 의해 비롯되어왔고 꾸러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대저 밥이란 무엇일까요
인도 사람은 인도식으로 밥을 듭니다
더러는 그것을 손가락밥이라 말합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식으로 밥을 듭니다
더러는 그것을 젓가락밥이라 말합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식으로 밥을 듭니다

37 ‘생활 정치’에 대한 설명은 김현미,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국가와 생활정치」, 『변혁적 중도론』, 정현곤 편, 창비, 2016, 230-247쪽. 참조.

더러는 그것을 마시는 밥이라 말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 밥을 듭니다
더러는 그것을 칼자루밥이라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밥을 듭니다
더러는 그것을 상다리밥이라 말합니다
손가락밥이든 젓가락밥이든
마시는 밥이든 칼자루밥이든
그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 싶으면서도
이를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밥 먹는 모습이 바로 그 나라 자본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아니다 그렇지 않다 밥은 다만 나누는 힘이다, 상다리밥은 마주앉는
밥이다, 지렛대를 지르고 나서
문득 우리나라 보리밥을 생각했습니다

— 「아시아의 밥상문화」 부분

시에서 화자는 ‘인도인’, ‘중국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이 각자 행하는 식문화
속에 해당 나라를 지배하는 자본의 질서가 깃들어 있음을 본다. 화자는 “밥 먹는
모습”에 깃든 “그 나라 자본”의 질서가 중국에는 “생활” 자체를 지배하고 사람들
사이에 위계를 만드는 상황에 불안을 느낀다. “손가락밥”이 “젓가락밥”보다 ‘미
개’하다 바라보고, “마시는밥”이 “젓가락밥”보다 ‘더 낫다’고 바라보는 관점에는
이미 ‘인도 위에 중국’, ‘중국 위에 일본’ 과 같은 자본의 위계로 해당 나라를 평가
하고 마는 편견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편견과 차별은 이들이 밥을 함께 ‘나누어
먹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3연에서 화자는 “밥은 다만 나누는 힘”임을 알리며 지금 필요한 작업은 서
로의 밥상에 속할 수 있는지 그 자격을 논하는 일이 아니라, “밥상”을 가능케 하
는 “단순한 땀방울”과 “민초”들의 “간절한 희망사항”, “뜨겁디뜨거운 정”을 떠

올리며 “겸상 합상 평상 위에 차린 보리밥”을 나누어 먹는 일임을 전한다. 자신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해 서로의 관계를 돌볼 줄 알 때 자본의 질서를 가로질러 가는 민중의 힘이 길러진다는 얘기다. 요컨대 “상다리밥” “마주앉는 밥”은 어떤 자격이 주어진 이들이 지정된 공간에 들어가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눔이라는 바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수행적으로 창출된다. 이러한 순간에 “정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는 선들을 가로지르게 된다.”³⁸ 차이를 가진 복수의 사람들이 각자의 특수성만을 상대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비개성’의 영역을 꾸릴 줄 알아야 평등이 보장된 ‘우리’라는 의미가 담긴 “마주 앉는 밥” “상다리밥”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시에서 화자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문화가 조성한 편견을 “밥”을 “나누는” 실천으로 지워나간다. 이를 두고 ‘아시아 민중’이 상호 협동하고, 보살피는 활동을 통해 기존 체제가 강제하는 위계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밥을 나누는 실천에 대한 조명은 그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관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공론장의 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밥상은 어떻게 차려지고 누구에 의해 점유되는가,’ ‘밥상을 지배하는 사회질서는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를 촉발시킴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상의 도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체의 형상을 가시화한다.

“우리의 살아있는 희망”이자 “평등의 씨알”, “평등의 밥으로 울어야” 하는 변혁의 주체로 소환되는 “아시아의 아이” (「아시아의 아이에게」), 강고한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 억압받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노동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하녀” (「하녀 유니폼을 입은 자매에게」), “구멍”을 팔지 언정 “혼”을 판 적 없다고 자부하는 성매매 여성 (「몸바쳐 밥을 사는 내력 한마당」)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는 시편들에서 ‘밥을 나누는 실천’에 해당하는 커머닝을 이루는 ‘해방의 주체’는 그들이 자신이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은 사회의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현장에 이

38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106쪽.

목을 집중시킨다.

이제 그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역사와 정치적 폭력이 그를 죽였지만 그러나 그를 일으키는 힘은 우리로부터 나옵니다 형제여, 어서 일어나시오 달리다 쿨, 어서 일어나시오 그를 일으키러 가야 합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신념의 나룻배를 신축하여 저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땅에 운명의 시체를 매장해야 합니다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갈망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속에 그가 살아있습니다

— 「그러나 너를 일으키는 힘은 우리로부터 나온다」 부분

위의 시에서 강단 있는 어조로 반복되는 “일으키는 힘은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누구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 힘 있게 이르는 구절이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은 개개인이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가운데 저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살려나간다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관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임져야 할 역사와 정치적 폭력”이 “죄 없는 젊은이”를 죽게 만든 역사를 마냥 방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힘을 발휘할 때, 주어진 질서와는 다른 방향의 역사와 문화는 비로소 창안될 수 있는 것이다.

3 시, 재창조의 영역

리비스는 “수량적 평균화에 불과한 ‘민주화’”를 경계하면서 “민중문화의 근원적 건강성과 창조성”을 중시한다.³⁹ 전통적인 공동체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민중의 문화’가 서린 언어를 살피는 길이 기계적인 사회에 대항하여 삶을 옹호하는 움직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던 리비스의 이 같은 입장은 언뜻 복고적으로

39 김중철, 앞의 책, 212-213쪽 참조.

보일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가 그리는 전망이 개인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소유 방식이 유지되는 질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존재’ 속에서만 체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실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성을 모두 고려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질서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리비스의 입장은 오히려 문학과 커먼즈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공동체론을 마련한다고 평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리비스가 ‘개성의 영역’, ‘누군가의 시’로만 여겨지는 작품보다 ‘비개성의 영역’, ‘누구나의 시’를 형성하는 작품을 더 높이 평가했던 바를 참조하여, 『밥과 자본주의』 연작이 상호 협동적 창조성을 이루는 언어로 기존의 소유 관계를 뒤엎는 커먼즈적인 시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살핀다.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문학작품을 둘러싼 관계에서 해당 작품이 판매될 때 지분을 가진 이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역은 강조하되 공적으로 축적되어온 언어로 만들어진 영역은 비가시화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뒤집는 방향성을 고정희의 연작시가 보여주는 모습을 읽고자 한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 중 여러 시편에 걸쳐 나타나는 전통적인 ‘기도문’, ‘노래’의 형식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형식을 시에 활용하는 방식, 또는 누구나 시를 통한 담화 상황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 협동하며 다른 체제로의 질적 전환을 이뤄내는 경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자본님
 가진자의 힘을 악랄하게 하옵시매
 지상에서 자본이 힘있는 것같이
 개인의 삶에서도 막강해지이다
 나날에 필요한 먹이사슬을 주옵시매
 나보다 힘없는 자가 내 먹이사슬이 되고
 내가 나보다 힘 있는 자의 먹이사슬이 된 것 같이
 보다 강한 나라의 축재를 북돋으사
 다만 정의나 평화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지배와 권력과 행복의 근본이 영원히 자본의 식민통치에 있사옵니다
 (상향~)

인용한 시는 기독교에서 교파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문인 ‘주기도문’의 문구를 빌려와 ‘자본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정황을 펼쳐놓는다. 자본주의 체제가 강화하고자 하는 질서인 약육강식의 구도가 개개인들을 강제하고, 급기야는 “개인의 삶”의 내적 질서로 체화되는 시대 상황을 기도문으로 패러디한 작품이다. 린다 허천은 패러디가 “과거의 것을 아이러니컬한 방식으로 반복함으로써” 현재의 “문화가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정치성을 획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⁰ 이를 참고했을 때 고정희가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미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상징들을 ‘다시 쓰기(re-writing)’ 위한 방편으로 자주 활용하는 패러디 기법은, 특히 위의 시에서는 아이러니한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정치적 언설로 통용되고 또한 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밖에 없는 담화 상황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권력에 꼭대기에” 있는 “자본”을 향해 존칭을 쓰고 신을 향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발화형태를 하는 위 시는 자본에 영합하는 권력자의 편에서는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들릴 위험성을 안고 시작된다. 하지만 “다만 정의나 평화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지배와 권력과 행복의 근본이 영원히 자본의 식민통치에 있습니다”와 같이 시가 지속적으로 패러디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인지시키면서 진행되는 전개나, 해당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예배를 무대화 했다는 인상을 남기도록 지시문의 역할을 하는 괄호 속 표현[“(상향~)”]이 등장하는 마무리 대목은 해당 시가 독해의 과정에서 모종의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특정한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한다. 자본이 지배를 이루는 세상에선 이룩할 수 없는 “정의”와 “평화”에 대해 ‘더 말해지지 않은’ 의미가 남아있는 상황을 겹쳐놓음으로써,⁴¹ 해당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당파성을 견인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담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시에서 아이러니는 시적 발화에

40 린다 허천, 장성희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현대미학사, 1998, 168쪽.

41 린다 허천은 아이러니가 “말해진” 의미와 “복수의 말해지지 않은” 의미를 “겹쳐”내고 “맞물리”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곧 해석자의 관점이 강조되는 수사적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Linda Hutcheon, *IRONY'S EDGE*, Routledge, 1994, p.19.

대한 독자 및 해석자의 참여로 의미를 조율시키고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위의 시가 활용하는 아이러니는 독자 및 해석자가 “정동적인 차원”에 들어서도록 “평가” 및 “판단의 태도”를 갖게끔 추동하는 수사이자,⁴² 자본주의, 가부장제 등 현존하는 체제가 갖는 문제적 속성을 전경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편이다.

아이러니 속성의 패러디를 활용한「주기도문」을 비롯해서 『밥과 자본주의』 연작의 여러 시편은 기도문의 형태를 자주 소환하는데, 이들 시편들은 대체로 독자/해석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면모를 보인다.

무릇 너희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온 말씀으로 거듭나니라, 수수께끼를 주신 하느님, 우리가 영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핵무기고에서 나오는 살인능력 보유자와 우리들 밥줄을 틀어쥔 자를 구세주로 받드는 오늘날 이 세상 절반의 살겁과 기아선상에 대하여 어떤 비상정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한나절을 일한 자나 하루 종일 일한 자나 똑같이 최대생계비를 지불함이 하늘나라 은총이다 선포하셨건만, 반평생을 뼈빠지게 일한 자나 일년을 흔빠지게 일한 자나 똑같이 임금을 체불당한 채 밀린 품삯 받으러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국적기업 뒤통무니 쫓아간 우리 딸들이 임금 대신 똥물을 뒤집어쓰고 울부짖을 때 당신의 말씀은 침묵했습니다

(…)

옳은 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는 시대가 오기 전에
하느님, 가버나움을 후려치듯 후려치듯
교회를 옳음의 땅으로 되돌려
참회의 강물이 온갖 살겁의 무기들을 휩쓸어가게 하소서
새로운 참소리 태어나게 하소서

42 Ibid. p.37. 참조.

거기에 창세기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 「행방불명 되신 하느님께 보내는 출소장」 부분

성경의 ‘로마서 8장 13절’을 연상케 하는 구절로 시작하는 위 시는 “영”으로 사는 삶의 진의를 탐구하지도 못한 채 “미사일 핵무기고에서 나오는 살인능력 보유자와 우리들 밥줄을 틀어쥔 자를 구세주로 받드는” 상태가 되어버린 세상을 고발한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하느님”이 아무리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온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신다 한들, 그 “밥”을 빌미로 자본과 폭력에 저당 잡힌 삶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시의 화자는 “하루종일 일”을 해도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거니와 일한 사람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 생존을 위한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세상, “자유”와 “정의”, “평화”라는 고귀한 말이 “제국주의 음모”와 “죽음의 쓰레기”들을 확장되는 데 쓰이는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언술을 ‘하느님’을 향한 기도문에 실어 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의 풍경이 지속되는 데에 “하느님”의 ‘부재’ (“행방불명”)가 기여한 것은 아닌지 물음으로써 “하느님”이 강조했던 “영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 조성한 위계질서를 폭로하는 것이다.

시에서 화자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온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실은 ‘밥’이라는 표현에 담긴 인간다운 삶의 지속성, 생존권의 유지와 연결된 많은 이들의 분투를 비가시화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논의를 개방한다. “교회”가 “밥”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때, “잘못된 권력이 가진 것”을 동시에 거머쥐어 “빼앗긴 백성들”에 대한 착취가 난무하는 “근궁한 시대”에 영합하는 ‘신’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3연에서 “그래서 교회는 병어리입니다 / 그래서 교회는 장님입니다 / 그래서 교회는 귀머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 그래서 교회는 침묵으로 번창합니다”와 같이 “교회”의 문제적 측면에 대한 고발로 이어진다.

기도문의 형태를 빌어 ‘개인’의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언술을 이어가기보다는,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는 “교회”, “교회”가 모시는 ‘신’을 소환하여 비판적인 언술을 이어가는 위 시의 발화방식은 해

당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화자와 더불어 “새로운 참소리 태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읊고 싶도록 이끈다. 고백적 언술로 이루어지는 기도는 시만의 고유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시대에 대한 태도가 담긴 기도에도 노출된 독자로 하여금 그 자신들의 언설로 가져가도록 전환시키는 것이다. 시의 마지막 구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아멘……”이란 표현은 마치 예배 참석자들 모두의 마음이 한 사람의 기도에도 실리듯이 이 시를 읽는 모두가 “새로운 참소리”에 대한 희구를 갖도록 만든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화자가 “밥”에 담긴 의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의 기관, 제도, 사회문화 등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그를 토대로 세상을 구축하는 관계성들의 변화, 체제의 전환(“거기에 창세기의 빛이 있습니다”)의 필요성을 시에 접근하는 이들의 발화 참여로 공유하는 상황은 ‘커먼즈’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기도가 곧 여러 사람의 기도가 되는 상황은 시가 커먼닝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들으소서 하느님

고장난 역사의 수레바퀴 위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못질한 방 속에서 타죽고

노동자가 온몸에 신나를 뿌리며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림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백성을 떡 주무르듯 하고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를 중 부리듯 하며

죽음의 주도권을 쥔 자들이 온세상을

핵무기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동안에도

우리는 평화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지고

민족이 두 쪽으로 갈라선 지난 오십년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 되는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평등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해방을 불신했습니다

살림을 넘어 죽임으로
기쁨을 넘어 절망으로 달리는 고장난 열차 속에서
우리는 오직 침묵했으며
우리는 하나 되는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용납하소서 평화의 하느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 성찬의 식탁으로 돌아가
해방의 피와 살이 되고자 합니다

— 「희년을 향한 우리의 고백기도」 부분

제목에서부터 “우리”의 “고백기도”라고 했거니와 위 시의 집단적 주체 “우리”는 다른 유토피아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고장난 역사의 수레바퀴 위”인 ‘지금 이곳’에 대한 기도를 중시한다. 기도를 하는 이들 스스로가 “정의” “평등” “해방”을 향한 실천에 대한 자기성찰과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는 성찬의 식탁으로 돌아가 / 해방의 피와 살이 되고자” 한다는 결의를 모으는 것이다. 인용한 위 시에는 “우리” “기도”의 수행은 곧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생존을 틀어쥐고 있는 “식탁”의 위계질서를 바꿔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희구 역시 담겨 있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에서 ‘기도문’의 발화방식이 소환되는 시편들은, 개인의 고백적 언술에 묶여 있기보다는 개개인들의 발화 속에서 공동체의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공유되는 담화 현장을 형성한다. 이는 시적 담화의 발화방식이 강조해왔던 ‘발신자-화자’의 역할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하도록 만든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에서 고정희의 문체는 의도적으로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글을 ‘어떻게’ 읽음으로써 ‘어떤 주체’를 창출하느냐를 중시하게 한다. ‘페미니즘 문학’을 주제로 한 좌담에서 ‘시인 개인의 고유한 창작’과 ‘운동으로서의 창작’ 사이를 어떻게 조율해야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전했던 바 있는 시인은,⁴³

43 고정희는 “일반적으로 창작심리에는 ‘운동’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밖으로부터 주

‘기도문’과 같이 따라야 할 규범이 뚜렷한 언술 방식과 시적 언술을 교차시킴으로써 ‘시인’ 한 사람이 가진 개성이 도드라지는 상황을 지양하고 그 자리에 시를 읽는 만인을 새겨 넣는 방식을 창안함으로써 미학과 정치성을 동시에 획득한다. 자칫 투박하게 읽힐 가능성이 있는 『밥과 자본주의』 연작 시편의 문체는 이처럼 시 한편의 발화를 한 사람의 독점적인 소유를 저지하는 방향을 갖춘 것으로 읽을 때 거기에 담긴 심원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의 처음과 끝에 위치한 시편들이 마치 ‘노래’처럼 읽히면서 일으키는 효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평등하라 평등하라 평등하라
 하느님이 펼쳐주신 이 땅 위에
 하녀와 주인님이 살고 있네
 하녀와 주인님이 사는 이 땅 위에서는
 밥은 나놀이 아니네
 밥은 평화가 아니네
 밥은 자유가 아니네
 밥은 정의가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평등하라 펼쳐주신 이 땅 위에,
 하녀와 주인님이 사는 이 땅 위에서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느님이 피 흘리신 이 땅 위에
 강도질 나라와 빼앗긴 나라의 백성이 살고 있네
 강도질 나라와 빼앗긴 나라 백성이 사는 이 땅 위에서는

어지는 주제에 대한 저항감이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법,”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창작심리가 페미니즘이라는 의도적인 틀이 주어지니까 위축되고 페미니즘에 충실해지려니까 안 써진다는 거”라면서 시인으로서의 고유성 창안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발언권 확보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짊어진 시인의 과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고정희 외, 앞의 좌담, 16쪽.

밥은 해방이 아니네
밥은 역사가 아니네
밥은 민족이 아니네
밥은 통일이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하나 되라 펼쳐주신 이 땅위에,
강도질 나라와 빼앗긴 백성이 사는 이 땅 위에서는

아아 밥은 가난한 백성의 쇠사슬
밥은 민중을 후려치는 채찍
밥은 죄없는 목숨을 묶는 오랏줄
밥은 영혼을 죽이는 총칼

그러나 그러나 여기 그 나라가 온다면
밥은 평등이리라
밥은 평화
밥은 해방이리라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면
밥은 함께 나누는 사랑
밥은 함께 누리는 기쁨
밥은 하나 되는 성찬
밥은 밥은 밥은
함께 떠받치는 하늘이리라
이제 그 날이 오리라, 여기
그 나라가 오리라, 기다림
목마르네 목마르네 목마르네

— 「민중의 밥」 전문 (밑줄은 인용자)

시집에서 『밥과 자본주의』 연작의 첫 번째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위의 시는 ‘평

등하라' '밥은 ~이 아니네' '밥은 ~'과 같이 비슷한 형태의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진행된다. 반복이 가져다주는 운율감과 비교적 쉬운 표현이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따라 읽게 만든다.

위의 시에서 '반복'은 따라 읽기 용이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된 바도 있지만 "민중의 밥"이 지향해야 할 "나눔" "평화" "자유" "정의" "해방" "역사" "민족" "통일" "평등" 과 같은 가치가 상실되어버린 '지금 이곳'의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 되기도 한다. 가령 "평등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울리면서 이것이 "하느님"의 요청 즉, 하늘의 뜻을 알리는 자리는 "하녀와 주인님"이라는 위계질서가 고착화된 "이 땅 위에서"이다. 과거의 신분 질서와 다를 바 없는 계급 갈등이 여전한 "이 땅"은 "강도질", "빼앗긴 백성"이 공존하는 만큼 "해방" "평등" "통일"이 요원한 곳이기도 하다. 이때 "밥은 ~이 아니네"라는 부정형 표현의 반복은 '민중의 밥'에 담긴 의미, 즉 "함께 누리는 기쁨" "하나 되는 성찬" "함께 떠받치는 하늘"로 이룩되는 풍경이 아직은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진 '밥'을 나누는 과정을 계속해서 가져가야만 자본의 부당한 질서를 뒤엎는 상황이 가능해짐을 알린다. 시의 화자는 '민중'이 능동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민중적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목마른' 상태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자신의 삶을 지속시키는 일에 태만하지 않고 "함께 누리는 기쁨"으로서의 '평등한 밥'을 쟁취할 수 있다고 전한다.

반복적인 표현으로 이뤄진 마지막 구절 "목마르네 목마르네 목마르네"는 해당 구절을 읽는 과정이 곧 "하녀" "빼앗긴 나라 백성" "가난한 백성" "민중" "죄 없는 목숨"에 해당하는 이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서의 "밥"에 대한 바람을 단절시키지 않는 상태, "함께 누리는" "그 날"에 대한 욕망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상태를 형성해야 한다고 유인하는 것처럼 읽힌다. 체제가 만드는 문제를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자가 겪고 있으리라 간주되는 이들이 이처럼 '반복'과 운율감에 따라 드러날 때, 이들 각자가 취하는 "행동이나 발화 행위"는 "각자가 내는 발성에 보조를 맞추"는 방식으로 "리듬과 조화"가 달성되면서 "복수의 주체"를 형성한다.⁴⁴ 위의 시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하녀" "빼앗긴 나라 백성" "가난한 백

44 해당 시편을 읽는 과정에서 형성된 '복수 주체', '우리'를 집회와 시위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 “민중” “죄없는 목숨”에 해당하는 이들과 해당 작품을 함께 읽는 것 마냥 시적 담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은 ‘시인만의 것’도, ‘읽는 나만의 것’도 아닌 현 사회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

함께 밥을 나누세 다정하게 나누세
함께 밥을 나누세 즐겁게 나누세
함께 밥을 나누세 마주보며 나누세

나누는 밥 나누는 기쁨
이 밥으로 힘을 내고 평등세상 건설하세
이 밥으로 다리삼아 해방세상 이룩하세

— 「밥을 나누는 노래」 전문

『밥과 자본주의』 연작의 마지막 순서로 배치된 위 시는 제목에서부터 “노래”임을 알리면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상황에 모두가 참여하자고 자연스럽게 권한다. 위의 시를 읽는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평등세상 건설”과 “해방세상 이룩”은 ‘함께 밥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거대한 자본 권력이 세상의 질서를 장악한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을지라도 ‘함께 밥을 나누’고자 하는 활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다른 전망이 제시될 수 있다는 믿음이 반복적인 표현으로 야기되는 주술성에 기대어 전달된다.

위의 시에 등장하는 “함께”의 의미는 특히나 다른 『밥과 자본주의』 연작 시편들과 더불어 살폈을 때 구체성을 띤다. “함께 밥을 나누세”라는 구절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는 자본과 소비, 경쟁과 이기심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생겨나는 취약계층에 처한 이들, 한 나라의 국민들만이 아니라 ‘아시아 민중’들까지

“복수 주체” “우리 인민”의 수행적 형성 과정에 빗대어 설명한 내용은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창비, 2020, 254-255쪽 참조.

를 모두 포함하여 이른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 시편을 차례로 읽다가 마지막 순서로 배치된 위의 시에 당도했을 때, 시에서 말하는 “평등 세상” “해방 세상”은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구축만을 강조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시는 오히려 “공동체의 (재)구성을 향한 협동적 창조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우애”를 수행하면서⁴⁵ “포함”의 운동으로서의 ‘함께’를 구축하는 가운데 “평등 세상” “해방 세상”은 실현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는 87년 체제 이후 소위 달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사회의 ‘민주화’가 실은 계속해서 실천을 통해 가져나가야 하는 수행적인 과제임을 알린다.

“함께”를 구축하는 ‘모두의 노래’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위의 시에서 ‘고정희’라는 고유한 이름을 시의 유일한 창작자로 추켜세우는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듯 보인다. 시는 다른 이들의 입으로 불리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작가가 소유하는 ‘작품’으로 굳어지지 않고 ‘공유자원’이 된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은 시인 자신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광휘에 휩싸이도록 쓰였기 보다는, 사회체제가 남긴 억압의 하중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이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어나가려는 민중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조명하는 데에 힘을 할애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줄 알아야 다른 전망을 구축할 수 있음을 전한다. 이때 “밥을 나누는 노래”란 표현으로 같음되는 시는 일종의 공동체가 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하는 제의적인 퍼포먼스로 자리한다. 시에 포개지는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로⁴⁶ 시는 커먼즈적 역량을 발휘하는 주체들의 노래로 재창조된다.

4 나가며: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노래

45 팬데믹 시대가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를 다시 사유하게 만들고 협동적 창조, 곧 정치적 우애를 통해 집단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민주주의의 과제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글로는 황정아,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한국모델」,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 황정아 외 공저, 창비, 2020, 17-43쪽 참조.

46 이 표현은 고정희가 참여한 ‘여성해방 시 모음집’ 강은교 외,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 이여라』(또 하나의 문화, 1988)에서 빌려온 것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시작된 팬데믹은 성장과 경쟁, 금융 축적에만 관심을 두었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재편하여 우리 사회가 협동, 공유, 돌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전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이다. 이를 염두에 둘 때 그간 공유지, 공적자원의 의미로만 알려졌던 ‘커먼즈’ 개념은 국가의 제도적 실행에 의존한 공공성의 재구축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公)’, ‘공(共)’, ‘사(私)’ 영역 전반에 걸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될 수 있다.

본고는 ‘커먼즈’를 지금 세계체제의 문제들에 맞서서 국가가 도식적으로 주도하는 ‘공공’을 넘어서면서도 고립된 개개인이 각자도생하는 상황 또한 넘어서는 자리에서 발휘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협동적인 움직임, 돌봄과 공유 행위를 중시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세계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역량 전반으로 이해하면서 고정희의 『밥과 자본주의』 연작을 커먼즈적인 실천으로 읽었다.

1990년대 초반 무렵에 쓰인 『밥과 자본주의』 연작은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사람들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에 대한 시인의 예리한 체감이 담긴 작품이다. 시인은 해당 연작시에서 부정의한 사회질서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주체들의 창조적 역량을 발굴하는 작업에 힘을 할애한다. 자본주의 질서가 이끄는 개개인의 사적 ‘소유’ 관계를 오히려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가시화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여 받아들임으로써, 협동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장면들을 담아낸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읽기 위해 본고는 『밥과 자본주의』 연작시 중에서도 ‘밥’, ‘밥상문화’가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서로를 돌보는 ‘비개성’의 영역을 매개하는 상황을 표현한 시편들을 살폈다. 고정희는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매개인 ‘밥’을 둘러싼 행위를 여러 사회적인 맥락과 연결하여 제시함으로써 ‘밥’을 둘러싼 관계에 참여하는 존재들의 목소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현장을 그린다. 이어서 전통적인 ‘기도문’, ‘노래’의 형식을 활용하는 작품을 살피면서, 이것이 곧 구성원들이 상호 협동하면서 다른 체제로 질적인 전환을 창조해내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을 논증했다. 이는 시가 ‘누구에게나’ 개방된 비평적 판

단 과정을 수반하여 여러 사람의 입으로 내내 불리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명의 작가가 소유하는 ‘작품’으로 굳어지지 않고 ‘협동적 창조의 범례’라 할 수 있는 ‘공유자원’이 되는 과정을 살피는 작업이자, 시가 쓰이고 읽히는 작업이 곧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면서 ‘우리’를 확장하는 ‘커머닝’의 일환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고정희의 『밥과 자본주의』에서 ‘커먼즈’적인 움직임은 읽어나간 본고의 시도는 87년 이후 ‘여성 시인’의 ‘변혁성’을 띤 시적 발화가 선취하는 급진성을 새삼 새길 뿐 아니라, ‘협동’ ‘공유’ ‘돌봄’ ‘함께 사는 삶’을 경시함으로써 위기에 봉착한 오늘날의 사회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초점화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작품의 현재적 의의까지 새기고자 했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은 ‘고정희’라는 시인 한 사람의 선구자적인 자취를 탐색하는 일 못지않게, 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술한 얼굴을 겹쳐냄으로써 중국에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시의 역할을 조율했을 때 시가 만들어내는 파급력의 강도가 더 셀 수 있음을 알린다. ‘백의 얼굴’을 경시하고 눈에 뜨이는 ‘하나의 얼굴’만을 추앙하는 사회에서 고정희의 시는 하나보다 백의 노래가 더 좋다고 말하는 자리에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내 사유하게 만드는 사회라면, 고정희의 시는 계속해서 모두의 노래로 불려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_____, 『고정희 시전집 2』 또 하나의 문화, 2011.
 _____,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 『월간중앙』 5월호, 1988.

단행본

- 강은교 외,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이어라』, 또 하나의 문화, 1988.
 김승희, 『현대시 텍스트 읽기』, 태학사, 2001.

김종엽 편, 『87년 체제론』, 창비, 2009.
 김종철, 『大地의 상상력』, 녹색평론사, 2020.
 또 하나의 문화, 『여성 해방의 문학 [또 하나의 문화] 제3호』(재발행본), 또 하나의 문화, 1995.
 이라영, 『정치적인 식탁』, 동녘, 2019.
 이소희,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 고정희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18.
 정현곤 편, 『변혁적 중도론』, 창비, 2016.
 조형 외 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또 하나의 문화, 1993.
 황정아 외,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 창비, 2020.

가이 스탠딩, 안효상 역, 『공유지의 약탈』, 창비, 2021.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J.K. 김슨-그레이엄·제니 캐머런·스티븐 힐리, 황성원 역,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동녘, 2015.
 린다 허천, 장성희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현대미학사, 1998.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역, 『돌봄선언』, 니케북스, 2021.

F. R. Leavis, *Nor Shall My Sword: Discourses on Pluralism, Compassion and Social Hope*, Chatto & Windus 1972.
 Linda Hutcheon, *IRONY'S EDGE*, Routledge, 1994.

논문

김민구, 「고정희 연작 「밥과 자본주의」에 나타난 정의의 결정행위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권 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31-60쪽.
 김보경, 「『또 하나의 문화』의 여성시에 나타난 ‘차이’ 라는 여성 연대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0호, 한국현대문학회, 2020, 119-151쪽.
 김영희, 「포스트 시대 인문교육에서 리비스의 효용: 테리 이글턴의 『비평의 기능』과 관련하여」, 『영미문학교육』 제17권 3호,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13, 61-85쪽.

백영경, 「복지와 커먼즈」, 『창작과비평』 제45권 3호, 창작과비평사, 2017년 가을, 19-38쪽.

이소희, 「『밥과 자본주의』에 나타난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와 문체혁명: 「몸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99-144쪽.

이은영, 「1980년대 시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한 재현과 부정성—고정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9권 0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205-238쪽.

정남영, 「리비스의 작품 비평과 언어의 창조적 사용」, 『영미문학연구』 제6권 0호, 영미문학연구회, 2004, 83-112쪽.

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제23권 4호, 한국아시아학회, 2020, 237-259쪽.

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 고정희 시를 읽기 위한 시론(試論)」, 『우리말글』 제71호, 우리말글학회, 2016, 241-273쪽.

황정아, 「문학성과 커먼즈」, 『창작과비평』 제46권 2호, 창작과비평사, 2018년 여름, 15-30쪽.

Thomas Allan, “Beyond Efficiency: Care and the Commons,” Centre for Welfare Reform(www.centreforwelfarereform.org), 2016.10.6.

Abstract

A Study on Go Jung-hee’s “Rice and Capitalism” Series of Poems and the Commons

Yang Kyungeon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poet Go Jung-hee’s “Rice and Capitalism” series of poems while reading the poem as a practice of “the commons.”

The commons movement is the act of pursuing the value of cooperation, sharing,

and caring by individuals, which goes beyond the state-led “public” and isolated individuals coming into conflict with the problems of the neoliberal order and capitalist world systems. When discussing the need to realize the “commons,” historians of Korean literature should pay attention to poet Go Jung-hee’s “Rice and Capitalism” series. The series, which is known to have been written during the poet’s six-month stay in Manila in the Philippines from August 1990 to February 1991, not only denounces the arrest of “Asian people” and “women,” but also organizes a living life beyond structural problems. By examining the “Rice and Capitalism” series, which is based on F.R. Leavis’s theory of community, this paper argues that living individuals practice “impersonality” and “interactive creativity” on top of the “rich indigenous languages” formed by their community’s history.

Chapter 2 examines the situation in which “rice” appears in the series of “Rice and Capitalism,” which goes beyond the realm of public and private affairs, mediating the realm of “impersonality” in which “everyone” takes care of each other, thereby visualizing the voices of those who participate. Chapter 3 examines works that utilize traditional forms of prayer and song in the psalms of “Rice and Capitalism” series, demonstrating that this could be a way for members to work together to transition to another society.

This attempt not only sheds light on the radicality of the poet’s “transformation” since 1987, but also re-focuses our attention on the value needed in today’s society which has been thrown into crisis by the neglect of “cooperation,” “sharing,” “caring,” and “living together. The “Rice and Capitalism” series shows that the work of poetry being written and read may be part of the “commoning” that expands “us” while actively forming a community.

Key words: Go Jung-hee, Rice and Capitalism, commons, cooperation, sharing, caring, impersonality, creativity, transformability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